민주 제주시갑 전략공천 '후폭풍'

전략공천 후보로 송재호 확정… 당내 파열음
예비후보들 유감 표명 속 재심 요청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송재호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전략공천 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당내 예비후보가 즉각 반발에 나서며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전략공천을 반대했던 일부 당원들이 반발 움직임에 가세할 경우 전략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15총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갈등 조율 능력이 제주시갑 선거구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공천 확정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사회에는 송 전 위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전략공천을 확정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략공천에 대해 이의 신청과 재심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전략공천 확정 발표는 지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의 패배를 재현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키워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한 경선을 요구해왔던 같은 당 문윤택 예비후보도 이날 "참담하고 아쉽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미 당내에서는 전략공천을 둘러싸고 일부 당원들이 반대 성명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내홍이 빚어졌다.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시민 일동은 이날 당원과 시민 등 1100명이 전략공천 반대 서명을 한 탄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희수·문윤택 예비후보에게 위로와 존경을 보내며 "문재인 정부의 완성과 민생 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도민의 자존 회복을 위해 압도적 승리를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로나19' 속 여야 공천 마무리 단계

민주 이번주 후보 모두 결정
통합당 28일부터 경선 시작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정치권의 총선 시계는 후보 공천 막바지 단계로 향해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3개 지역구 후보 공천은 이번 주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강창일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는 제주시갑에 송재호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이에 앞서 지난 21일 위성곤 국회의원을 서귀포시에 단수 추천했다.

제주시을은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 오영훈 국회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가운데 한 명에 대해 공천을 확정한다.

미래통합당도 공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 3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했다. 면접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중 최종 심사를 통해 경선 진출자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은 28일 서울·인천 지역부터 시작된다. 미래통합당은 24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경제 지주산업… 수년째 추락세

▶1면에서 계속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현재 9000억원 수준인 감귤 조수입을 50년 뒤 1조 5000억원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감귤 주산지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감귤농가의 실질소득창출과 무관한 정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제주지역 채소작물도 2016년 6767억원에서 2017년 5413억원으로 떨어진 후 지난 2018년에는 4847억원으로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양돈과 양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양식광어 가격도 급락하는 등 제주 축·수산업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산 활광어 산지가격은 kg당 7951원으로 2017년 1만6000원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기록했다. 2008년 12월 7526원을 기록한 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8년 제주도의 가구당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보다 무려 4132만원이 많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2011년 가구당 3638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5292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201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63만원으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주도가 1차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동안 농가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방법과 개선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증대방안 모색, 농가 실질소득 위한 기술보급, 소농직불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도내 농어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5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정당·성명·가나다 순>

통합당 장성철 "실용주의 혁신 길 갈 것"

제주시갑 출마 공식 선언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즈음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용주의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며 제1공약으로 '정기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두번째 공약으로 '제주 제2공항 정상적 추진의 적극적 지원'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 제주경제 고도화를 위한 물류인프라의 핵심 시설이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 예비후보는 같은 당 고경실 예비후보를 향해 "제2공항과 관련한 입장이 여러번 바뀐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은지기자

"대면접촉 선거운동 지양"

제주시갑 고경실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고경실(사진) 예비후보는 24일 "제주도는 도민과 제주 방문객을 지키기 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준전시사태의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한다"며 "당분간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지자들에게 선거사무소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낙하산 송재호, 심판해야"

제주시갑 구자헌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구자헌(사진) 예비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략공천 확정과 관련 "총선에서 낙하산 후보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 전 위원장은 서귀포시 출신이며 우리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며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 문대림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내보낸 것처럼 사실상 낙하산 후보"라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가상현실 문화관광 구축"

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김영진(사진) 예비후보는 24일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VR)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도내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경험하는 체험관을 추가 설립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재래시장 방재시설 현대화"

제주시갑 양길현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양길현(사진)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래시장 방재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지역의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오일시장 모두가 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어 방재시설 현대화가 긴급히 요청된다"면서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기 배치는 물론 '스마트화재알림서비스' 구축을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제주형 청년신협 설립"

제주시을 부승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사진) 예비후보는 24일 "제주형 청년신협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2·3 금융권이나 사채로 인해 젊은 나이에 삶이 파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형 청년신협 설립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국공유지 활용 위기 돌파"

제주시을 김효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김효(사진) 예비후보는 24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의 공유지는 약 1억5000만㎡로 도 면적의 8.2%에 이르고 있다"며 "이 공유지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단지 조성, 도민생활 SOC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 내수 건설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4·3테마공원 조성할 것"

제주시을 부상일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사진) 예비후보는 24일 "4·3유적지인 낙선동성터와 목시물굴을 잇는 4·3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조천읍 선흘리는 4·3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곳"이라며 "특히 유적지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낙선동성과 동백동산, 목시물굴까지의 5㎞ 거리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